

2013
부산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

2013. 10. 1 ~ 31

자유바다소극장, 한결아트홀(구. 가마골 소극장), 미리내소극장, 공간소극장
열린아트홀, 액터스소극장, 6번출구소극장, 청춘나비아트홀

주최/주관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대머리 여가수

부산 소극장연극 협의회

2013. 10. 17 ~ 27 자유바다소극장 문의 051-504-2544

평일 오후 8:00 토일 오후 4:00



호 민

구민주

이혜영

오영섭

강혜경

신민호

시놉시스

대머리 여가수

외젠 이오네스코의 <대머리여가수>

현대 연극의 역사를 다시 쓴 반(反)연극 외젠 이오네스코의 작품. 1950년 5월 프랑스 파리의 녹탕빌 극장에서 초연 된 이래 오늘날까지 50년간 쉼 없이 파리 생 미셸 거리 위제트 극장에서 공연 되어지고 있는 세기의 명작이다. 현대 연극의 주요 경향이라 불리는 부조리극의 대표작 <대머리 여가수>는 기존의 연극적인 특성에 도전을 가한 작품이다. 모든 비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이 되고, 인물들은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주고 받는다.

연출의 글 친근한 명작을 꿈꾸며

부조리 연극 '대머리 여가수'는 전위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작품이다. 당시의 파격은 이미 익숙해져 더 이상 파격이 아니게 되었다. '전위'와 '고전' 사이, '고전'이라는 단어는 작업자에게 항상 부담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무엇인가 특출나야 한다는 부담감. 그래서 다시 한번 '대머리 여가수'를 살펴본다. 고전 작품이지만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연극판에서도 충분히 파격적일 수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무대적 표현들이 가득 차 있다. 어깨의 힘을 풀어야 한다. 고전을 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재밌는 친구를 대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려고 한다. 부산소극장연극협회의 첫 번째 축제 합동공연 '명작극장'의 연출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그 만큼의 부담도 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지명도에 비하여 쉽게 공연되지 않은 '대머리 여가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명작이지만 친근한 작품으로 탄생 시키고자 한다.

기획/제작 부산 소극장연극 협의회

작 외젠 이오네스코

연출 김만중

출연 호 민, 구민주, 이혜영, 오영섭, 강혜경, 신민호

스텝 무대소품 허종오 음향 박현실 조명 김정한

루브 luv

극단 아센 www.acen.kr

2013. 10. 3~13 미리내소극장 문의 051-504-2544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5:00(월 공연함)

정체성을 잃어 버린 괴물 같은 <사랑>

연극

LUV

The first classic



시놉시스

루브 luv

정체성을 잃어 버린 괴물 같은 <사랑>

고교 동창생인 밀트와 해리는 15년만에 우연히 길모퉁이에서 만나게 된다. 고교 시절 절친했던 두 친구에겐 15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 밀트는 대학입시에 실패한 후 약삭빠른 처세와 현실에 집착하면서 아파트 투기사업을 벌여 큰돈을 벌었고, 해리는 이상을 찾으며 현실과의 부적응으로 자포자기적인 생을 살아간다. 마침 해리가 자살하려는 순간 밀트를 만나게 되고 밀트는 해리에게 사랑을 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할 것을 권유한다. 해리는 밀트의 권유를 받아들인다. 밀트는 명문대학 출신의 지성과 미모를 갖춘 부인 엘렌과의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새 애인과의 결혼을 위해 계획적으로 엘렌을 해리에게 소개한다. 엘렌과 해리는 밀트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에까지 이르고 밀트는 새 애인과의 새로운 사랑을 구하여 기뻐하는데...

사랑의, 사랑에 의한, 사랑을 위한..

현대의 모든 사랑 예찬론자들에게 던지는 사랑에 대한 역설!

기획 최동민

작 머레이 쉬스갈

연출 호민

출연 구민주, 김우진, 김상호

스텝 조명 김민아 음향 이상훈 그림 김기백, 배진화 무대 김한진

홍보디자인 최유리 함께만드는사람들 정형철, 최현영